

광주 옛 교도소 부지 국가사업 추진 확정

정부, 청년 창업 지원 혁신성장·복합 문화공간 조성 시, 민주·인권 기념파크 조성 원점서 재검토 불가피

광주시가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 추진하고 있는 민주·인권 기념파크 조성사업이 국가사업으로 확정됐다. 정부가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 혁신성장,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하기로 한 것이다. 5·18 민주화운동 사적지이기도 한 교정시설 부지 개발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게 됐지만, 광주시가 구상해 온 민주·인권 기념 파크 조성 계획은 원점에서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광주시는 11일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광주 교정시설 부지 토지 위탁개발 사업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2015년 10월 광주교도소가 북구 삼각동으로 옮긴 뒤 법무부에서 관리하던 약 8만 7000㎡ 규모 유류 국유지에 1155억원을 투입한다.

계획안에는 5·18 사적지 22호인 미결사, 기결사 5동 등 수용 시설을 보존해 체험전시관으로 활용하고 인권교류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광주 지역 전략산업, 전남대·조선대 등 대학과 연계한 청년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혁신 성장공간, 주상복합과 근린생활 시설을 조성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지구 지정 등 인허가

절차를 진행해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사적지인 수용 시설을 보존하는 등 광주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 추진중인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사업이 11일 국가사업으로 확정돼 오는 2025년까지 국비 115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진은 옛 광주교도소 전경.

시 요구가 반영되기는 했지만, 시의 민주 인권 기념 파크 조성 사업 계획은 백지상태로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해당 부지에 인권교육훈련센터, 인권평화 교류센터, 인권평화기념공원, 인권 유스호스텔 등을 짓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광주시 관계자는 "10년 가까이 끌어오

면서 지역 사회 갈등 요인이 되기도 했던 옛 광주교도소 개발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확정된 데 의미가 있다"며 "시민에게 열린 공간,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 시민 참여 체납정리반 56억 징수

80명 채용 5개월 운영

광주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체납정리반을 운영해 체납액 56억3000만원을 징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민들은 세무 공무원과 함께 체납자에게 전화 납부 안내, 실태 조사 등을 실시한 뒤 체납액 징수,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업무도 수행했다.

시민과 함께하는 체납정리반은 사비 지원을 통해 자치구에서 시민 80명을 채용하고,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흑서기를 제외한 약 5개월간 운영됐다. 체납정리반은 상반기 50명, 하반기

30명 시민이 참여해 3~11월 흑서기를 빼고 5개월가량 운영됐다. 200만원 이하 소액 체납자 16만명에게 체납액 298억원 납부 안내 등을 통해 6만4567명으로부터 38억원을 징수했다.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4498대를 영치하고 체납액 18억3000만원을 징수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체납정리반이 올해 좋은 성과를 거둬 내년에도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면서 "체납자에 대한 전화 납부안내와 자동차 번호판 영치업무도 지속 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 '수돗물 사고' 피해보상 추진

의료비 지원 등 일괄 보상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달 7-8일 서·남구 일부지역(화정동, 주월동, 월산동)에서 발생한 수질사고 피해 보상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다만 보상은 수질사고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인적·물적 피해에 한정된다. 의료비, 정수필터 교체비, 생수구입비 등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수돗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보상 기준 등을 마련하고, 타 자치단체 사례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피해보상 접수는 11일부터 24일까지로 우편, 이메일 및 상수도사업본부와 서부·남부 지역사업소에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보상 T/F팀으로도 문의 가능하다.

보상 신청과는 별개로 지난달 7일 수돗물 수질사고로 피해를 입은 전 세대에 11월분 수도요금 50% 일괄 면제할 예정으로 11월분 수도 사용량은 1월 고지분에 반영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보좌관 급여 착복' 나현 광주시의원 의원직 상실

시의회 제명 처리...민주 비례대표 후순위 의원직 승계

광주시의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보좌관 급여 착복'으로 물의를 빚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나현(비례대표) 의원의 징계안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전날 윤리위원회를 열어 소속 의원 9명 전원 일처로 징계의 최고 수위인 제명 처분을 결정하고 본회의에 상정했다. 본회의에는 재직 의원 23명 중 나 의원을 제외한 22명이 참석해 21명이 찬성하고 1명이 기권했다.

본회의에서 재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징계안이 가결된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인 나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

으며, 민주당 비례대표 후순위가 의원직을 승계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도 전날 윤리심판원을 열고 나 의원을 제명 처분했다.

1991년 개원한 광주시의회에서 의원이 제명된 것은 지난 2008년 사회복지법인인 허가에 부정 개입한 김모 의원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제명처리 된 나 의원은 시간선택제 임기 공무원을 보좌관으로 두면서 다른 보좌관의 급여 명목으로 내야 하는 돈(매달 80만원)을 채용한 보좌관으로부터 돌려받아 물의를 빚었다.

민주당 광주시당과 광주시의회가 동료 의원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린 것은 최근 민주당 지방의원들의 잦은 구설수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잦은 물의로 지역 내 여론이 악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앞서 북구의회 의장 등 민주당 소속 의원 4명이 '거짓 외유성 출장'으로 물의를 빚었고, 곡성군 의회 의원들 간 폭행 사건도 논란이 됐다. 특히 올 들어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 등이 도마에 오르면서 민주당 일당독점에 따른 폐해라는 지적이 있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해상풍력 발전단지 등 지역 현안 집중 건의

김영록 지사, 행안부·해수부 방문 관광 컨트롤타워 관광재단 설립도

김영록 전남지사는 11일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전남형 일자리 사업을 대표하는 해상풍력단지 조성 등 지역 핵심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김 지사는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지방세법 개정 등 따라 농어촌지역 등의 재정 여건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지방재정 보전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정경 전남, 블루 이코노미"의 관광 분야 프로젝트인 '블루 투어'를 중점 추진할 지

역관광의 컨트롤타워 '전남도 관광재단' 설립도 논의했다.

전남도는 민간 관광 부문과 함께 전문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전남기구 설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관련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이외에도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제정, 국립 섬 발전연구진흥원 설립 지원, 해상풍력 선도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 등 행정안전부 소관 현안에 대해 협조를 당부했다.

김 지사는 이어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을 만나 신안 일대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에 필수적인 지원 부도와 배후단지 사업 등을 정부 제4차 항만 기본계획

에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다. 그동안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 건의했던 세풍산단·황금산단의 항만 배후단지 전환과 관련해서는, 2020년도 국비에 세풍산단 1단계 용지매입비 21억 원이 반영됨에 따라 잔여 부지에 대한 배후단지 지정도 차질 없도록 협조를 구했다.

이와 함께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다목적 환경정화선 건조,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제도 개선, 무역항·연안항 등 핵심 기반시설의 국가계획 반영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영록 지사는 "지역의 미래 먹거리가 될 전략사업들을 중장기 국가계획에 반영시켜 실행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수도권서 e-모빌리티 투자유치 총력

전남도는 11일 서울 더케이 호텔에서 e-모빌리티 관련 수도권 기업 CEO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설명회를 했다. e-모빌리티는 기존 승용차와 차별화된 전기구동 방식의 1-2인 개인용 이동 수단이다.

미래 이동수단을 선도할 한국 스마트 이모빌리티 협회 70여 회원 기업이 이날 설명회에 참석해 전남의 투자유치 지원 제도와 플랫폼 구축계획을 들었다.

이들은 e-모빌리티 중심지인 영광 대마 전기자동차 산단 투자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전남도는 설명회에서 핵심부품 국산

영광 대마산단 중심지 조성 기업 CEO 등 대상 설명회

화 지원 연구개발, 비즈니스 모델 개발, e-모빌리티 엑스포 개최, 규제 자유 특구 지정 등 우수 인프라와 투자 환경을 소개했다.

전남도는 e-모빌리티 산업 클러스터 조성 로드맵에 따라 2025년까지 4751억 원을 들여 5개 분야 1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기구동 운송수단 실증 기반 구축, e-모빌리티 엑스포 개최 등을 통해 영광

대마 전기자동차 산단 주변을 e-모빌리티 산업 중심지로 만들 방침이다.

특히 올해 8월 영광군·목포시·신안군 일원(37km·2.7km)이 e-모빌리티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규제 완화 개선 관련 산업 육성 토대도 마련했다.

배택휴 전남도 일자리정책본부장은 "정부의 에너지 효율화 정책에 발맞춰 전남이 e-모빌리티 산업의 글로벌 중심 도시가 되도록 성장 가능성이 큰 e-모빌리티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IMPACT

KB국민카드 X

광주명품백화점

ADIEU 2019

12월 11일(수) ~ 12월 15일(일) / 5일간

하나. 경품 이벤트

- 행사기간 중 구매시 경품 응모권을 증정합니다.
- 보테가베네타 가방 1명
- 버버리 장지갑 1명
- 버버리 남·여 벨트 각 2명
- 발렌시아가 여권케이스 2명
- 프리데미에 패딩 5명
- 19.12.22 개그쇼 초대권 30매
- 20.2.19. 비(RAIN) 콘서트 티켓 5매
- 하퍼스 블랙라벨세트SET 10명

둘. 구매 금액대별 사은품 증정

10만원 이상	50만원 이상	70만원 이상
---------	---------	---------

- KB국민카드 결제 금액대별 사은품 증정 이벤트
- 10만원 이상 파자마
- 20만원 이상 마스크팩
- 70만원 이상 스키프

개그콘서트 SHOW

2019년 12월 22일(일) 오후 2시 / 5시

광주명품백화점 내 골드하우스

티켓 구입처 : 인터파크 NHN 티켓링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509 (구.아름다운컨벤션 자리) 문의 전화 062) 946-3333